

HOME 뉴스 사회

봄에 활짝 핀 국화 보러 오세요

권경을 기자

승인 2018.03.29 09:45



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(동장 강병곤)은 중성동 족발골목 입구의 노후된 건물 뒷 벽면에 하늘 위로 치솟는 노란 국화로 골목을 환하게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.

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일대는 구.마산의 중심지였다. 지난해 국화축제가 창동 구도심과 어시장 일원에서 개최됨으로써 주변상가에 활기를 불어 준 것을 계기로 사계절 볼 수 있는 국화를 벽화 소재로 선택했다.

골목 하나 달리할 뿐 창동예술촌과 등을 붙이고 인접해 있으나 도시재생 선도사업 범위에서 매년 누락되면서 소외감을 느껴오던 참에, 오동동주민센터에서 골목입구 포장공사와 벽화 조성, 족발골목 안내간판을 설치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골목 깊숙이 끌어왔다.

70~90년대 수출자유지역 근로자들과 시민들이 쫓깃하고 맛있는 족발과 고갈비를 맛보기 위해 즐겨 찾던 '중성동 족발골목'에 족발집은 이제 세 집만 남아 있지만 1977년부터 문을 연 일식집 신라초밥을 비롯해 화성갈비, 퓨전일식 와라와라, 커피숍 등 다양하고도 맛의 연륜을 가진 식당들이 숨어 있다.

상인들은 "벽화 덕분에 골목이 환해져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구경하다가 사진을 찍고, 골목 안을 두리번거리며 관심을 가져주니 기분이 좋다. 특히 파란하늘에 활짝 핀 국화가 사람들을 반겨주는 것 같아 즐거운 거리가 되었다." 며 반겨했다.

이에 강병곤 동장은 "우리 동네 유명 맛집을 알려 2018 창원방문의 해에 찾아 온 관람객의 발걸음을 잡고 눈과 입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"이라고 자신하면서, "창동과 중성동이 활기를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니만큼 지역민들도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관광객을 맞이해 주기 바란다"고 당부했다.

권경률 기자 qnfwhddl@nate.com

<저작권자 © 창원인뉴스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